

## 협회소식/ 업계동정

### '92 제2차이사회 개최 공동홍보사업계획 논의

韓國乳加工協會(회장 全應璫)는 지난 6월29일 하오 협회회의실에서 '92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92공동홍보세부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협회의 상반기 주요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공동홍보로 우유시장확대 우유소비촉진 홍보 세미나

韓國乳加工協會는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동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업계, 낙농업계, 학계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홍보로 우유시장확대'란 주제로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미국사료곡물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벤자민 비숍미국 낙농산업연합회선임부회장은 '우유 소비홍보 및 소비자교육방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우유소비홍보는 계속성과 일관성이 요체라고 들고 전낙농·유가공업계가 참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숍씨는 또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식생활변화에 따라 우유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조급에 의한 공동홍보방안을 도입,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숍씨는 특히 우유홍보방안에 대해 칼슘이나 비타민, 철분 등이 풍부한 우유는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임을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全應璫회장은 이자리에서 벤자민비숍씨에게 미국의 우유홍보 체계와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유홍보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 우유위생관리 세미나 개최

韓國乳加工協會는 지난 5월12일 하오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유와 유제품의 변질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하절기를 앞두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충일 건대축산대 교수가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 김태섭보사부위생관리과장이 "'92위생시책 및 위생관리방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이 '유제품과 소비자보호'란 주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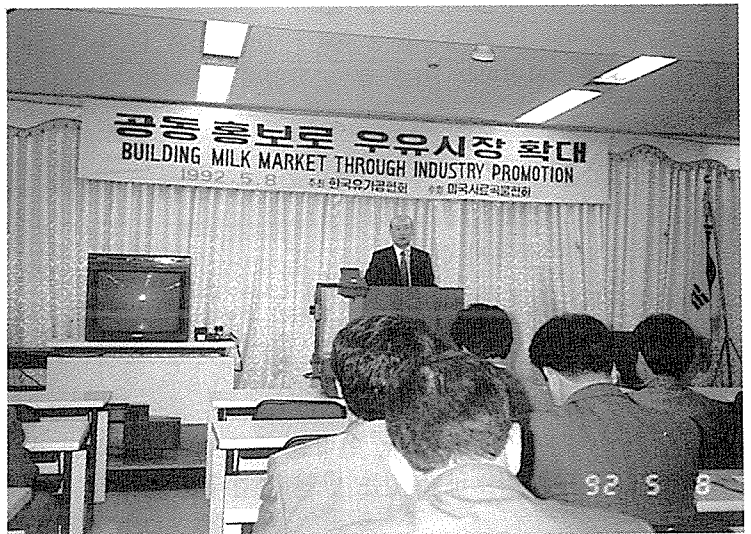
### 서울우유, 낙농헬퍼제 실시

서울우유는 7월1일부터 낙농가의 인력부족 충원과 기술지도를 위해 시간제 목부제(낙농헬퍼)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따르면 7월부터 낙농전문교육을 이수, 낙농경영관리사 자격을 갖춘 낙농헬퍼 18명을 경기도내 9개지소에 각 2명씩 배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우유조합은 이들 18명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부 지원 1억8천만원을 포함한 3억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낙농기초이론, 목장실습, 낙농기계점검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낙농헬퍼



제도는 낙농교육을 받은 요원이 낙농가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목장과 젖소관리를 대행해 주는 제도로서, 낙농헬퍼를 이용할 농가는 1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하루 2만5천원의 이용료를 내게된다.

이같은 제도는 연중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업의 특성과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정기휴일과 각종 경조사에도 쉴 수 없는 낙농가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 제도에 대한 낙농가들의 참여·이용실태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 “파스퇴르 해명비용 배상” 서울지법, 남양에 승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林完圭 부장판사)는 6월9일 남양유업이 비식용 화학첨가제가 들어있는 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등에 게재한 주·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지방광고행위금지등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은 남양유업이 해명공고를 낼수 있도록 5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파스퇴르유업측이 정기간행물이나 텔레비전등에 이같은 광고를 다 게재할 경우 남양유업측에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의 광고내용은 허위로 밝혀진만큼 이같은 광고로 인해 남양유업측이 입은 명예훼손등을 회복하기 위한 광고비용을 파스퇴르유업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南陽, 저온살균우유 생산

남양유업이 곧 저온살균우유시장에 진출한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저온장시간 살균우유(LTLT) 생산을 위해 20억 원의 자금을 투입, 지난5월 미국 TCT社로부터 제반설비를 도입하여 忠南公州공장에 라인설치를 끝낸데 이어 최근 브랜드네임을 ‘다우(DOW)’로확정, 7월부터 본격 생산에 착수키로 했다.

남양유업은 썬셔 63도에서 30분간 살균처리, 생산한 저온우유 다우는 품질보증을 위해 목장주가 서명한 원유품질보증서(Hang Tag)를 각제품에 부착해 시판할 예정이다.

### CIS에 분유 10만캔 수출 매일유업, 국내업체론 처음

한국産 분유제품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연합(CIS)에 수출됐다.

매일유업(대표 朴永鏞)은 최근 국내 乳업체로는 최초로 지난 5월 4일 CIS에 조제분유 10만캔(4백g 기준, 1만7천달러)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이 이번에 수출한 분유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매일맘마’ 시리즈와 동일한 제품으로 CIS에서 활동중인 한 서방 무역중개상을 통해 수출이 이뤄졌다.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CIS에 대한 분유수출로 국내 乳업체의 동구권 진출 발판이 마련됐으며 매일유업은 현재 기타 東歐 국가와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적극 타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지난 81년부터 중동 및 동남아 지역에 조제분유를 수출

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3백만캔(5백10만달러)을 수출한 바 있으며 올해도 1백만캔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롯데우유, 드링크요구르트 ‘후레쉬’ 자체개발 본격시판



(주)롯데햄·롯데우유(사장 趙東來)는 최근 떠먹는 요구르트 ‘후레쉬’를 자체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후레쉬는 유산균이 일반요구르트의 20배에 이르고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성인에게도 필수 영양소인 칼슘이 1백60mg 들어 있는게 특징. 권장소비자가격 3백50원.

### 매일, ‘바이오거트-D’ 용량다양화 디자인 바뀐

매일유업은 엑스포 93 공식요구르트제품인 ‘바이오거트-D’의 제품을 다양화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

바이오거트-D는 기존의 떠먹는 요구르트(호상)인 바이오거트와는 달리 마실수 있도록 액상상태로 만든 제품으로 천연과즙을 사용해 맛이 부드럽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할 수 있게 용량을

다양화했다

바이오거트-D는 플레인, 딸기 두종류가 시판되는데 소비자가격은 65ml가 2백원, 1백80ml가 5백원으로 편의점 수퍼마켓등에서 판매하여 가정배달도 해주고 있다.

## 建國, 요구르트개발시판

건국종합농축산(대표 전년규)이 최근 요구르트를 새롭게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새로 개발된 「건국요구르트」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계대배양에 의하지 않고 균주를 원료액에 직접 투입하는 최첨단 D.I.V(Direct Vat)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됨으로써 오염되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며 유산균수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이제품은 침전방지를 위한 안정제 등 화학제를 일체 첨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성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건국요구르트」는 건국종합농축산 건국우유 사업부 연구개발부와 (주)건국우유 품질관리과가 합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생산은 (주)건국우유 인천공장에서 하고, 판매는 건국종합농축산에서 맡고 있다.

건국종합농축산은 이로서 작년 4월부터 임가공을 통해 생산·공급하던 체제를 직가공 형태로 바꾸었다.

양산체제를 위해 자동포장기·사출기 등 전자동시스템을 갖추었다.

1일 15~20만개를 생산, 보급소를 이용,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

건국종합농축산은 앞으로 상품차별화에 주력, 연말께 1~2가지 제품을 더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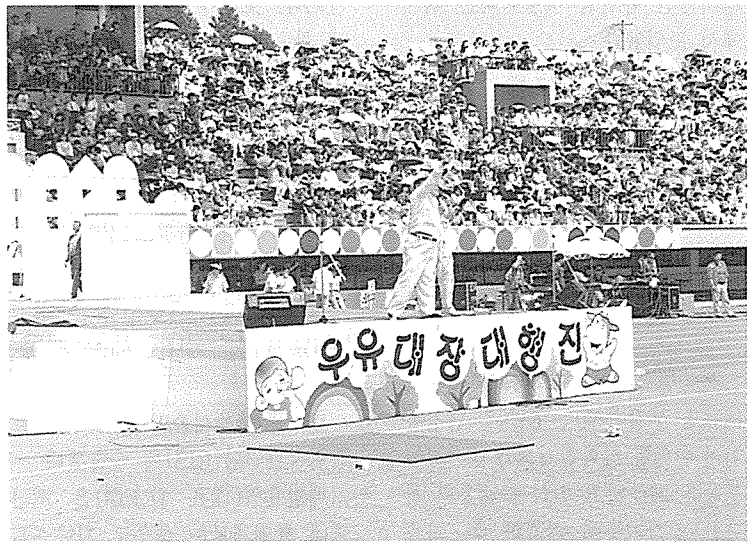
「건국요구르트」는 65ml 포장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은 90원.

## 서울우유 창립 55주년 기념 우유대장 대항진행사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權五杰)은 지난 5월24일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4회 우유대장 대항진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서울우유 창립 55주년 기념행사의



## 安山 멸균유공장 착공 서울, 日産2백톤 규모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4월 9일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일 생산능력 2백t 규모의 멸균유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경기도 안산시 제3공장 부지에 새로 짓는 이 멸균유생산공장은 지상 2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면적이 1천9백85평에 달하며 건설비는 일본정부의 공공차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자금 95억6천5백만원에 포함해 1백33억9천만원이 책정됐다.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즐겁게, 튼튼하게, 씩씩하게’라는 슬로건아래 내일의 꿈나물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제1부 신나는 축하행진, 제2부 우유대장선수들의 건강게임, 제3부 연예인과 함께 즐거운 나라로, 제4부 행운을 누구에게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우유의 관계자는 “현재 멸균유 생산량은 하루 31t으로 멸균유 부문에서 부족한 물량은 다른 업체의 위탁가공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양공장의 착공으로 멸균유 소요량의 충당은 물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살균과정을 거치는 시유가 유통기한이 짧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멸균유 생산공장을 건설하게 됐다”며 “멸균유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는 멸균유 생산시설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말에는 타업체의 위탁가공을 통해 멸균유를 공급받던 불편을 해소하고 우유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원가상승 요인의 부담도 덜게 됐다.

### 斗山식품, 유제품통합상표 '그린빌'로 결정 사용키로

斗山종합식품(대표 安基瑩)은 유제품류에 공통으로 사용할 통합상표를 '그린빌'로 최종 결정하고 7월부터 이 상표명을 모든 유제품에 사용키로 했다.

푸른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그린빌'은 푸른마을과 건강한 가정, 그리고 자연이 숨쉬는 곳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같은 기업정신을 담고 있

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斗山유업, 농산흡수합병 斗山農産으로 상호 변경

韓國乳加工協會 회원사인 斗山乳業은 최근 그룹차원에서 식품관련 계열사의 영업조직을 두산종합식품으로 통합한데 따라 斗山農産을 흡수, 합병했다.

상호를 斗山農産으로 정한 이 회사는 유제품, 맥아 및 증가집 김치 등의 생산과 그룹내 운송사업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새로 출범한 斗山농산의 대표이사 사장은 崔鎭雄전두산유업사장이 계속 맡게 됐다. 또 두산농산을 두산유업에 흡수하면서 상호를 두산농산으로 결정한 것은 생산품목이 유제품에서 김치등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국립보건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및 학계의 식품문제전문가들로 가칭 '식품행정개선 특별연구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이 연구팀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를 토대로 식품행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보사부가 이번 작업에서 식품공전내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품목허가항목을 없앨 경우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은 제조업허가만 받으면 개별품목제조에는 관여를 하지않는 대신 사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일본의 제도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여년전 약전을 모방해 비식품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공전이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식품행정이 규제 위주로 흘러 식품산업의 자율성은 물론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도 있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개선작업은 업계의 발전이 도모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수준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축산진흥기금 대출금리 6월부터 연5%로 인하

지난 6월1일부터 축산진흥기금중 일부 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5월22일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축산진흥기금 중 ▲돼지고기수출잔여육 ▲축산물 수매·비축지원자금 ▲초지조성자금 등 3가지의 대출금리를 현행 8%에서 5%로 인하,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종합소식

### 식품행정 규제탈피 자율화 품목변경 허가없이 가능케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인 보사부의 식품행정이 대폭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최근 식품업계의 자율 발전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식품업체들이 개별품목을 만들거나 기존의 품목내용을 일부 변경할 때마다 보사부와 각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행정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품목허가와 관련, 식품의 제조원료와 성분, 함량, 규격, 첨가물 등 식품제조업의 '바이블'로 불리는 '식품공전'을 아예 없애거나 그 내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상위규정인 식품위생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의 이같은 계획은 메탄을 파동 이후 보건행정최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식품공전의 제정 당시 ▲비식품전문가들이 만든 데다 ▲대한약전을 모방한 까닭에 식품위생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중시하게 만들고 ▲공전상의 규정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규제일변도로 흘러 식품산업의